



상반기 수도권 분양시장 '맞대결'



신도시 효과·새 아파트 수요 등 적은 물량 단기간 완판·웃돈 붙어

올 상반기 수도권 서부와 동부지역 간 아파트 분양 맞대결이 예상된다. 서부지역은 인천 계양과 경기도 안양, 동부지역은 경기도 성남과 하남에서 비슷한 시기에 분양이 이어진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7~2018년) 서부 지역 공급 물량은 계양 2600가구, 안양 9394가구에 불과했다. 적은 공급 물량으로 최근 분양된 단지들은 단기간에 완판되거나 웃돈(프리미엄)이 붙었다.

지난해 10월 분양된 작전역 '서해그랑블(280가구)'과 앞서 2월 분양된 계양 '효성해링턴플레이스(1669가구)' 등이 단기간에 계약을 완료했다. 또 안양에서 지난해 5월 분양된 평촌 어바인 퍼스트는 전매제한이 풀린 지 한달 만에 전용면적 84

<서부·동부 지역 내 주요 분양 단지>

구분	단지명	위치	전용면적 (㎡)	총 세대 (일반분양)	공급 시기
서부	e편한세상 계양 더 프리미어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254-14	39~84 (46~84)	1646 -830	1월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13-14	59~105	1199 -659	1월
	남강주택 재건축(가칭)	안양시 호계동 851	미정	142 -87	3월
동부	성남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A5·7·8블록	84	1033	상반기
	분당 지웰 푸르지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	84~119	166	1월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 A3-4b블록	85 초과	877	3월

*상기 내용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각사

㎡ 분양권에 3000만원 정도의 웃돈이 붙었다.

동부지역도 만만치 않다. 성남은 분당으로 대표되는 막바지 개발효과가 있고, 하남은 위례신도시 영향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수도권에서 과천시(3.3㎡당 4023만원)의 아파트 매매가가 가장 높고, 성남(2199만원)과 하남(1849만원)이 뒤를 잇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올 상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계양은 3기 신도시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인천 계양의 굴현·동양·박촌동 일대를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벨리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S-BRT 운영, 국도39호선 확장 및 인천공항고속도로 I C 등을 신설해 서울 접근시간을 평균 15분, 여의도까지 25분 내 소요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확충토록 했다.

안양도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어 새 아파트의 공급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성남과 하남 등 동부지역도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상장기화, 잦은 청약제도 개편 등으로 분양 일정이 미뤄졌던 물량이 상반기에 분양채비에 나선다.

상반기 수도권 서부 지역에 분양될 단지는 'e편한세상 계양더프리미어',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등이 있다.

'e편한세상 계양 더 프리미어'는 삼호

와 대림산업이 이달 인천 계양 효성동 254-14번지 일원의 효성1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다. 지하 2층~지상 33층, 12개 동, 전용면적 39~84㎡, 1646가구로 조성된다. 일반 분양 물량은 830가구다.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1월 경기 안양 동안구 비산동 413-14번지 일대의 비산2지구 재건축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37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05㎡, 1199가구 가운데 659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동부권에선 제일건설이 상반기 중 경기 성남 판교 대장지구 A5·7·8블록에 '성남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를 공급한다. 단지는 전용면적 84㎡ 위주의 1033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하남에서는 우미건설이 오는 3월 학암동 위례신도시 A3-4b블록에서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를 선보인다. 877가구 규모로 전가구가 전용 85㎡ 초과의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종업원수 증가 상위 5개 기업>

순위	최근 5년('12년~'17년)		최근 3년('14년~'17년)		최근 1년('16년~'17년)	
	기업명	증가(명)	기업명	증가(명)	기업명	증가(명)
1위	이마트	14,246	CJ올리브네트웍스	8,306	LG이노텍	3,616
2위	스타벅스커피코리아	8,007	스타벅스커피코리아	5,724	삼성전자	2,897
3위	현대자동차	7,488	SK㈜	4,497	GS리테일	2,664
4위	CJ CGV	5,646	삼성웰스토리	4,220	CJ올리브네트웍스	2,637
5위	농협파트너스	5,270	GS리테일	3,761	스타벅스커피코리아	2,429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OPNI)

한경연 "종업원 제일 많이 늘린 곳 '이마트'"

5년간 300대 그룹 계열사 분석 결과 스타벅스코리아·현대자동차 뒤이어

대기업들이 최근 5년간 종업원을 적지 않게 늘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300대 그룹 계열사 종업원 수를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부문별로는 제조업에서 종업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종업원 증가율이 높은 30개 기업에서 5년간 3만2782명을 뽑았다. 24만4886명에서 27만7668명으로 늘었다. 기업 숫자도 10개나 됐다.

단, 증가율로 보면 전문과학기술 분야가 더 많았다. 2893명에서 1만2653명으로 337.4%나 급증했다. 기술 개발 분야 직원 채용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도소매업은 2만8586명이 늘어나 제조업 뒤를 이었다. 2014년부터 3년간 증가자는 2만1949명으로 제조업(1만5392명)을 앞질렀다.

기업별로는 이마트가 5년간 가장 많은 1만4246명을 늘렸다. 스타벅스코리아(8007명)와 현대자동차(7488명)가 뒤를 이었다. CJ CGV(5646명)와 농협파트너스(5270명)도 5위 안에 들었다.

3년간은 CJ올리브네트웍스(8306명)

가, 2017년에는 LG이노텍(3616명)이 규모를 많이 키웠다. 스타벅스코리아와 GS리테일도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도 많은 인력을 새로 뽑았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 수출환경의 악화와 자동차, 조선업계의 구조조정과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부 대기업들은 종업원수를 늘려왔다"며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 기업활력 제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기업의 채용확대 여건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도심 노후 청사,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

울산·제주 등 총 8곳 사업계획 승인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8곳이 공공임대주택 1167가구로 재건축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같이 지어 공급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8곳(1167가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심 내 좁고 낡은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면서 공공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 방식이다.

사업을 통해 임대수요가 풍부한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 노후화로 주민 이용이 불편했던 청사 등을 재건축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수준도 높일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선도 및 공모사업으로 전국 42곳 6300가구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고 작년에는 수시공모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번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곳은 2017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울산 신정동 어린이집과 제주 일도이동 주민센터 등 5곳을 포함해 총 8곳 1167가구다.

울산 신정에서는 노후화된 어린이집을 재건축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전통시장인 신정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90면)을 확충하면서 행복주택 100호를 함께 건립한다.

제주 일도이동 주민센터는 재건축하면서 행복주택(120가구)과 공영주차장(189면)을 같이 짓는다.



울산 신정 재건축 조감도. /국토교통부

옛 충남 예산군청 부지에는 행복주택(150가구)과 지역편의시설을 함께 건설한다. 천안 두정문화회관은 재건축해 교육·복지시설을 개선하고 행복주택(400가구)을 건설한다.

포항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는 주민공공시설과 행복주택(120가구)을 건설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문화예술팩토리, 북구청을 신축한다. 이들 사업지는 올해 착공해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채신화 기자

정유업계, 저유가 먹구름에 '어닝쇼크'

유가 급락·공급 과잉에 4분기 적자

국내 정유기업들이 유가급락, 공급과잉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어닝쇼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일 IB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2018년 4분기 매출액 13조2000억원, 영업손해 650억원의 실적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유사업이 적자를 기록하며 실적 악화의 주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합형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 정유사업 부문의 실적은 수요 둔화에 따른 정유제품 가격 하락폭이 국제유가 하락폭을 상회, 복합마진 악화에 기인한다"며 "유가급락에 따라 일회성 비용인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약 2000억원 발생해 적자폭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S-OIL도 유가급락, 마진위축의 여파

로 매우 부진한 4분기 실적이 예고되고 있다.

윤재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S-OIL의 지난 4분기 영업손해는 1114억원으로 전망한다"며 "정유부문의 대규모 적자(2881억원)가 전사 실적 부진의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관련손실 약 2600억원과 높은 원료가격 투입의 부정적인 레깅효과가 발생한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같은 업종이자 비상장사인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도 유가하락에 따른 레깅효과로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연구원은 "정유·석유화학업체의 4분기 영업이익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진할 전망"이라며 "이는 유가급락에 따른 부정적인 레깅효과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자동차365' 올해 리콜 확인기능 등 추가

출시 1년 맞아 서비스 개선 사업

자동차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종합포털서비스 '자동차365'가 출시 1년을 맞아 리콜 확인, 부실검사 신고센터 등 기능을 추가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정식 오픈한 자동차365는 1년간 평균 평균 2300명 이상이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실적은 55만건, 모바일 앱 다운로드 1만6842건을 기록했다.

50여개 제공 서비스 가운데 ▲신차등록비용 ▲자동차검사 안내 ▲폐차·말소 등록 절차 ▲중고차등록비용 ▲자동차 제작사 안내 등이 조회 수 상위 1~5위에 올랐다.

상위 조회 콘텐츠 15개 중 30%(7개)가 중고차 관련 서비스였다.

자동차365에는 신차·중고차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구매금액과 배기량, 등록지역만 입력하면 공채를 포함한 등록비용을 간단히 계산해주는 기능이 있다.

허위매물 등 중고차 구입 시 문제 될 수 있는 이력을 조회해 확인하고 중고차 매



자동차365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매상사나 종사자 등록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중고차 구입 후 정상적으로 이전등록이 됐는지 알려주는 '푸시'(능동형 알림) 기능과 함께 24시간 금급증을 해결해주는 '대화형 챗봇(Chatting Robot)'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유가정보(오피넷), 교통정보 등 연계를 추진하고, 차량의 제작결함(리콜) 확인기능, 부실검사 신고센터, 중고차 시가표준액 조회 등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정보과장은 "자동차 365에 다양한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는 개선 사업을 통해 한자리 통합 서비스(원스톱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